

일본산 경유 수입액 1억달러 돌파

8월 1억400만달러로 사상 최대 ... 전자상거래에 할당관세 폐지 영향

일본산 경유 1개월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페트로넷에 따르면, 8월 일본산 경유 수입물량은 82만1000배럴로 수입액이 1억400만달러에 달해 2011년 일본산 경유 수입총액 1억2300만달러에 육박했다.

2012년 1-5월 4만-8만배럴 수준이던 일본산 경유 수입량은 6월 20만배럴, 7월 53만배럴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8월 수입량은 188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347%, 수입액은 2억2800만달러로 320% 폭증했다 사실상 일본산 경유가 수입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경유 소비량이 월 1000만배럴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12년 초 1%에도 못 미치던 일본산 경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현재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대를 돌파했으며, 연말에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산 경유 수입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겠다고 3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용 수입품에 한해 3%의 할당관세마저 폐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산 경유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60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싼 가격에 수입하지만 세제혜택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정유기업과 소수 수입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가격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나오는 비판은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며 “전자상거래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 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국내 시장상황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5>